

사료업체, 구제역방역 ‘총력’ 기울여

지역별 방역단 생석회 등 도포 실시간 모니터링 현장 대응책 마련

사료업체들이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길에그리퓨리나, CJ제일제당, 대한제당, 두산생물자원, 천하제일사료, 팜스코, 도드람 B&F, 우성사료 등 전체 사료업체들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별 방역단을 통해 방역용품과 생석회, 소독약을 이용, 현장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고 구제역 관련 시장 상황을 공유하면서 확산을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사료회사들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연말에 예정돼 있던 각종 사내 송년모임이나 사외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했다.

업체들은 방역대책반을 구성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현장 대응책을 마련했고, 영업·공장·내근인력이 일사분란하게 고객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구제역 대응 지침에 따라 심각 단계로 규정하고 △방역전문차 운용 △생석회 지원 △방역세트 제공 △방역의식 고취 활동 △개인방역과 공장 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방역 등 현장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방역전문차는 차량자체 자동 방역시스템 기능을 완벽하게 갖춘 특수 제작된 일체형 4륜구동 방역전문차량으로 소독제재 분사 거리가 30m나 되고 소독제재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200m짜리 호스릴을 활용해 구석구석 방역을 하고 있다.

사료업체 한 관계자는 “축산 농가가 현재 힘든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